

## ‘전기요금 공약’ 실현 가능성 ‘갑론을박’

### 6·3 지방선거 D-75

김영록 120원...강기정 차등제 적용  
정준호 에너지믹스·주철현 에너지공  
신정훈 90원·민형배 100원 목표 제시  
‘단가 경쟁’ 치열...재원 마련이 관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후보들이 첨단기  
업 유치 해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공약을 앞다  
투 제시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  
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더불어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김  
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경

선기호 순) 후보는 최근 TV토론회와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저가 전력, 전기요금 차등제 등 전기  
요금 공약을 내놓았다.

후보들 모두 값싼 전력 확보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RE100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데  
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목  
표 단가를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한 후보는 김영록·신정  
훈·민형배 후보다.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산  
업용 전기 kWh당 120원 공급’ 목표를 내놓고 단계  
적 접근을 강조했다. 1차적으로 120원 수준으로  
맞춘 뒤 점차 낮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김 예비  
후보는 자산지소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시·도민에  
게 분배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호 공약으로  
산업용 전기를 kWh당 90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  
고 밝혔다. 약 100만평 규모의 RE100 전용산업단지4  
곳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과 함께 전  
남광주 에너지공사를 설립, 기업과 직거래하는 방  
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kWh당 100원  
공급을 목표로 제시하며 맞섰다.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ESS)·계통 전력을 결합한 분산형 전  
력망을 구축하고 전력공사를 설립해 직접 공급  
체계를 만들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단가 경쟁보다 제  
도 개편에 무게를 실었다.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실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  
혔다. ▶2면에 계속 /변은진기자



“소중한 물 아껴 써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사흘 앞둔 19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구청 광장에서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정한 날이다. /조영권 기자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추진”

禹의장, 국힘 제외 6개 정당과 연석회의  
부마항쟁도...내달 7일 개정안 발의 목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  
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  
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도 포함하  
는 헌법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아날초당적개헌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

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  
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  
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  
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여야가 충분히 합  
의할 수 있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제부터  
추진하는 내용의 개헌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다  
시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  
극적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과 여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탓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  
으로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  
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은 4월7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  
로 오는 30일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  
를 설득하기로 했다. /김진수기자

### 알림

#### ‘SONG : THE BATTLE OF THE LEGENDS’

## 정동하 × 알리 광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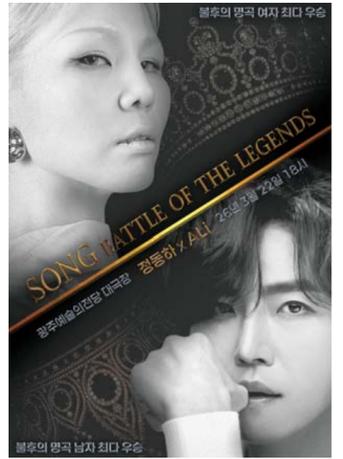
3월22일 오후 6시 광주예술의전당

다른 음악 색채·폭발적 감성 무대

지역 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매  
일신문이 ‘정동하×알리 콘서트’를 개최합  
니다.

오는 3월22일(일) 오후 6시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정동하×알리  
콘서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로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와 폭발적인  
감성으로 수많은 팬을 사로잡아온 두 아  
티스트가 만나 하나의 무대를 완성합니  
다.

‘정동하×알리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연명: 정동하×알리 (SONG : THE BATTLE OF THE LEGENDS) 광주
- 일 시: 2026년 3월22일(일) 오후 6시
- 장 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 주 최: 광주매일신문
- 주 관: 광주매일신문·티나엔터테인먼트

## 姜시장, 오늘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무소는 마북동에 마련

23일께 공식 출마 선언 검토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  
보에 돌입한다.

19일 강 시장 측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일 오후 4  
시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민선 8기 시장  
성과를 토대로 한 통합특별시 비전 및 발전 전략  
제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AI·모빌  
리티산업 육성, 광주·전남 상생 협력 정책 등을 강  
조해온 만큼 이를 통합특별시 차원으로 확장하는  
구상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 시장은 임기 내 광주 민간·군공합 통합  
이전 추진, ‘빅3’ 복합쇼핑몰 착공, 도시철도 2호선  
상부도로 개방 등을 이끌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자  
신의 정책 추진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무소는 광주 마북동 일원의 모뎀하우  
스에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예비경선이 20일 마무리



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선거전  
에 뛰어든 것”이라며 “예비후  
보 등록이후 첫 행보로 23일 통  
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를 앞두  
고 시장 직무를 잠시 내려놓기 전, 마지막 자리”  
라며 “20일 오후 4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4  
시에 (시장으로서) 공식 일정이 끝나서 그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제가 잡  
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는  
부시장들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  
라며 “광주·전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  
기로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풀려가도록 준비  
해왔다”고 덧붙였다. /변은진기자

### Today

인터뷰·김정연 장애인공단 광주본부장 5면

참사 1년3개월...무안공항 전면 재수색 6면

‘연타석 홀린’...확달라진 KIA ‘박민’ 16면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 이제는 [일자리] 특별시